

韓 · 美軍간 정보전 · 정보작전 概念에 대한 小考



해 군 대 학
中 領 성 주 진*

◇ 目 次 ◇

- | | |
|--|---|
| I . 머리말 | III . 용어 사용 및 해석상의 차이점으로
본 한 · 미군간 정보전과 정보작전 |
| II . 韓 · 美軍간 정보전 · 정보작전 개념
상의 차이점 | 1. 첩보 및 정보 |
| 1. 한국군 교리상의 정보전과 정보
작전 정의 | 2. Intelligence Operations과
Information Operations |
| 2. 美軍 교리상의 정보전과 정보
작전 정의를 통해 본 한국군 교리
와의 차이점 | 3. War, Warfare, Operations |
| | IV . 맺음말 |
| | ※ 참고문헌 |

I . 머리말

미국은 걸프전을 통하여 정보작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수행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걸프전 종전 후 정보전(Information Warfare)과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 합참에서는 1997년 1월에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교리초안(Joint Pub 3-13)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한 · 미 연합사에서도 1999년 5월부터 한반도 정보작전 지침서(Information Operations-Korea)를 발간 활용중에 있다.

* 해군제2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졸업, 미 상륙전 고급반 연합전략정보과정 수료, 해군대학 정보참모 교관(現)

◆ 海洋戰略 第114號('02. 3)

한국 합참에서는 2001년 4월부터 정보체계를 운용하는 전한국군에 대해 정보작전 방호태세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각군별로 운영지침 안(案)이 수립되고 시범을 보이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테러집단과의 전쟁양상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전쟁은 기동전의 개념보다 지휘통제전, 정보작전의 개념이 작전의 양상을 주도할 것이며, 한반도 전장에 실현 및 적용 가능한 전쟁수행 개념도 발전된 기동전 개념을 포함하는 제한된 수준의 정보전 개념이 적용되는 정보전 위주 통합전투 개념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방위가 한·미 안보체제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독자적인 교리연구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하고 또 각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보전, 정보작전에 관한 용어사용이 정확한 인식과 개념이 확실히 정립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한·미 연합작전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미군과의 차이점을 각종 교범상의 교리와 용어 해석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개념정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韓·美軍간 정보전·정보작전 개념상의 차이점

정보전, 정보작전 개념의 경우 한국군은 미군과의 개념 차이로 인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바로 정보전 및 정보작전의 개념과 범위, 영역, 적용범주, 적용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들 수 있다.

즉, 한국군은 정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보작전보다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미군은 반대로 정보전을 정보작전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전과 정보작전의 적용범주와 적용시기가 서로 틀린다.

1. 한국군 교리상의 정보전과 정보작전 정의

가. 한국군 야전교범 100-1, 「지상작전」에 의하면 정보전(情報戰, Information Warfare, 약칭 IW라고 함)이란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와 정보체계는 보호하고 상대국의 정보체계를 교란 및 파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군사 및 비군사분야를 포함한다. 정보전 유형에는 정보작전, 경제 정보전, 사이버전 등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정보작전(情報作戰, Information Operation, 약칭 IO라고 함)이란 “전장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와 C'I 체계는 보호하고, 적의 정보체계 및 C'I 체계를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 장악에 기여하는 작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합동교범 3-9(초안) 「합동정보작전」에서는 정보작전의 구성요소로 지휘통제전, 민사, 공보활동을 포함하며, 지휘통제전은 정보작전의 하위요소로서 심리전, 군사기만, 작전보안, 전자전 및 물리적 공격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전, 정보작전 공히 적용시기를 전·평시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전과 정보작전 개념비교(한국군)

구 분	정 보 전	정 보 작 전
개념 · 범위	○ 국가 총력전(대전략전) 차원 ○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반적인 개념	○ 군사적 차원 ○ 군사작전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개념
영 역	○ 군사/비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	○ 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
범 주	○ 정보작전 ○ 경제정보전 ○ 해커전 ○ 사이버전	○ 지휘통제전 - 전자전 - 심리전 - 물리적 파괴 - 작전보안 ○ 민사작전 ○ 공보작전
시 기	○ 전 · 평시	○ 전 · 평시

2. 美軍 교리상의 정보전과 정보작전 정의를 통해 본 한국군 교리와의 차이점

가. 1998년 10월에 발간된 미 Joint Pub 3-13 「Joint Doctrine for Information Operations」에 의하면 정보작전은 자신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적의 정

◆ 海洋戰略 第114號('02. 3)

보 및 정보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이며, 모든 수준의 전쟁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전 작전단계에 적용하며, 국가 및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작전들(지, 해, 공, 우주, 특수)과 통합되어야 한다. (Information Operations involve actions taken to affect adver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while defending one's ow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IO apply across all phases of an operation, throughout the range of military operations, and at every level of war..... Information Operations must be integrated with other operations(air, land, sea, space, and special) and contribute to national and military objectives)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전은 재래식 군대전장이나 그 범위를 넘어선 전장에서 분쟁이나 위기시 적에 대하여 특별한 목표를 달성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보작전이다. (Information Warfare is IO conducted during time of crisis or conflict to achieve or promote specific objectives over a specific adversary or adversaries..... IO can be waged in crisis or conflict within and beyond the traditional military battlespace)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와 정보(C⁴I)는 정보작전에 결정적인 지원을 한다.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Computers(C⁴) and Intelligence provide crucial support to Information Operations)고 명시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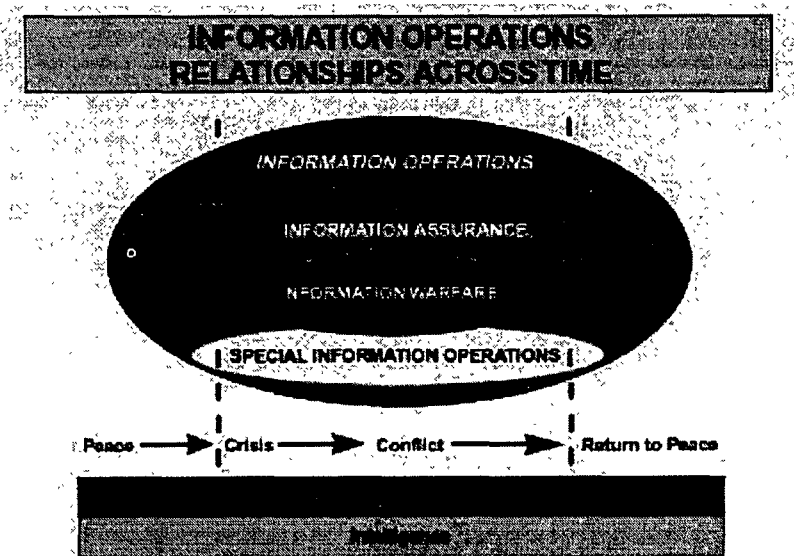


그림 1.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적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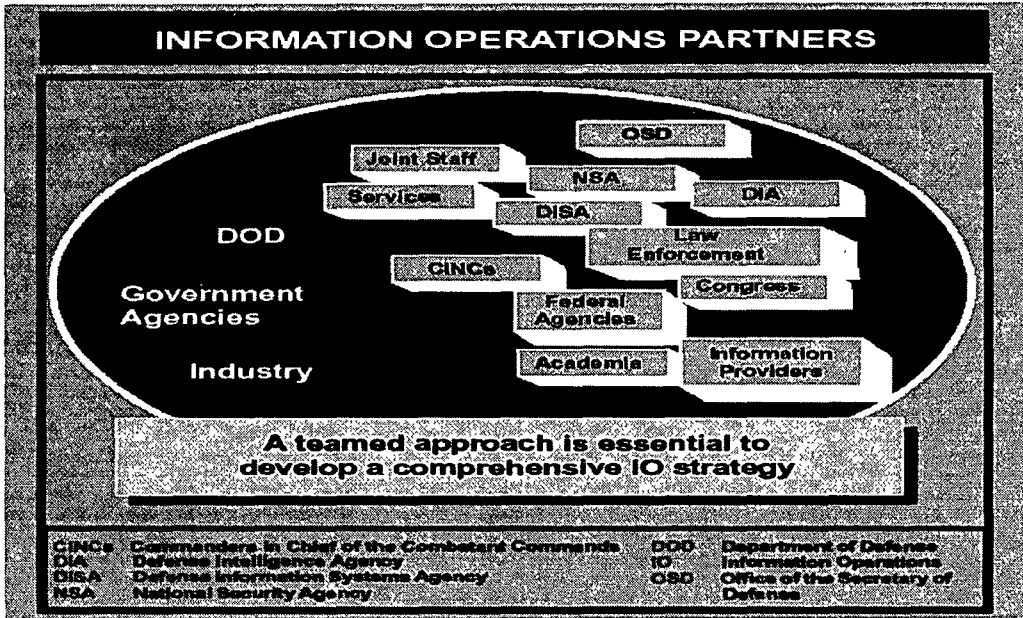


그림 2. 정보작전 협력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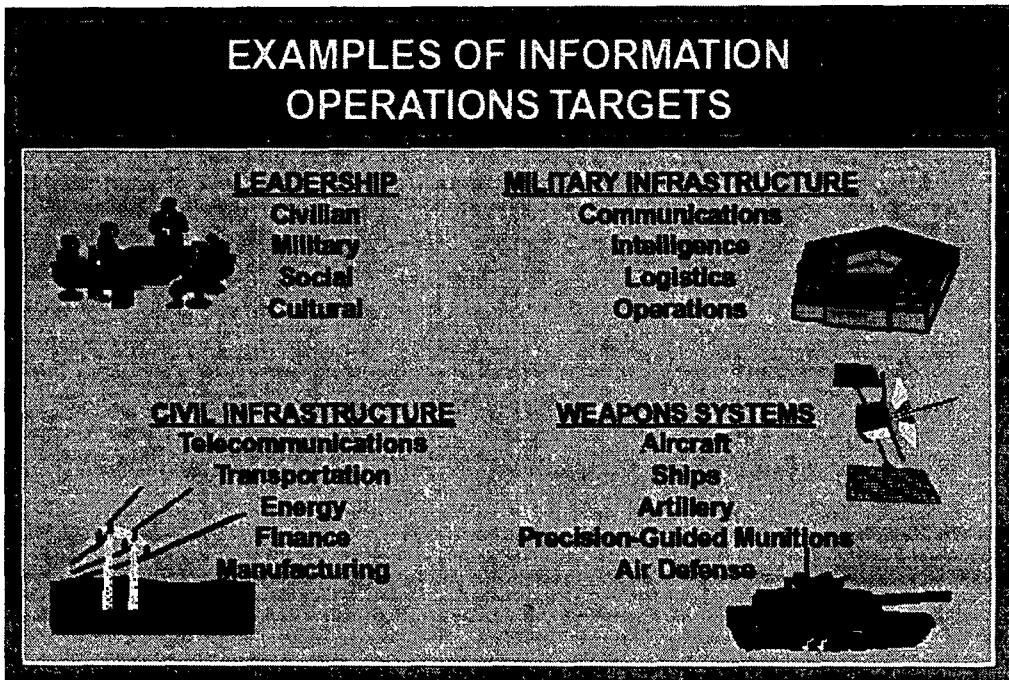


그림 3. 정보작전 대상목표물 例

◆ 海洋戰略 第114號(02. 3)

앞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⁴I는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지원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보전(Information Warfare)과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의 상대적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를 평시(Peace), 위기시(Crisis), 분쟁시(Conflict)로 구분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앞의 그림 2. 정보작전 협력 대상자(Information Operations Partners), 그림 3. 정보작전 대상목표물 예(例)(Examples of Information Operations Targets)에서도 정보작전의 협력대상자나 추구하는 목표 대상물은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비군사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 한국군 교리와와의 차이점

(가) 개념 · 범위

1) 한국군의 경우 정보전은 국가 총력전(대전략적) 차원에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반적인 개념이고, 정보작전은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작전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개념이다.

2) 미군의 정보전은 정보작전의 범위내에서 위기시나 분쟁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개념이며, 정보작전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반적인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 반대 개념이다.

(나) 영역

1) 한국군의 정보전은 군사, 비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이고, 정보작전은 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이다.

2) 미군의 정보전은 군사적인 정보 및 정보체계이고, 정보작전은 군사, 비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이다. 즉, 다시 말해 반대 개념이다.

(다) 적용시기

1) 한국군의 정보전, 정보작전 적용시기는 공히 전 · 평시 적용하고 있다.

2) 미군은 정보전의 경우 위기시와 분쟁시, 정보작전의 경우 평시 · 위기시 · 분쟁시 모두 적용한다.

나. 한·미 연합사에서 발간한 「한반도 정보작전 지침서(Information Operations-Korea)」에 보면 “정보작전(IO)은 우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면서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제반활동으로서 전쟁의 전범위에서 발생한

다. 정보작전은 북한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지역적 안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억제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억제실패시, 연합사는 북한에 대해 정보전(IW)을 수행할 것이며, 이때의 정보전은 위기시 혹은 교전시에 적에 대하여 특별한 목표를 달성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되게 될 것이다. 정보작전은 공격 및 방어의 양면성이 있으며, 연합사의 지, 해, 공, 우주 및 특수작전에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지휘통제전(C²W)은 정보전의 하위요소(subset of IW)로서 지휘통제전은 심리전, 군사기만, 작전보안, 전자전 및 물리적 파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정보에 의한 상호지원하에 적의 지휘통제 능력을 거부하고 영향을 미치며, 기능을 저하시키고 파괴하면서, 적으로부터 우군의 지휘통제 능력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지휘통제전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정보작전의 한 응용분야이다.

공보, 민사 및 정치 군사활동은 정보작전 능력을 갖고 있고, 정보작전 주도권과 목표를 지원하며 정보작전 지원을 요구하는 기능적 분야이다. 정보작전 지원요소로서 이들은 적절히 통합되고 기존의 정보작전 영역과 더욱 동시화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한국군 교리와의 차이점

(가) 적용범위 · 실행목적 · 적용시기

1) 한국군의 정보전은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반적인 개념이고, 정보작전은 군사적인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개념이다. 적용시기는 정보전, 정보작전 공히 전 · 평시 적용하고 있다.

2) 미군의 정보전은 위기시 혹은 교전시 적에 대한 특별한 목표 달성 또는 추진시 수행하며, 정보작전은 북한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지역적 안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억제역할을 하며 전쟁의 전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 실행목적에서 정보작전이 정보전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개념으로 한국군과 서로 반대개념이다. 또한 적용시기에서 미군의 경우 정보전은 위기시 혹은 교전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적용범주

1) 한국군은 정보전의 범주에 정보작전과 경제정보전 · 해커전 · 사이버전을, 정보작전의 범주에 지휘통제전 · 민사작전 · 공보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정보작전이 정보전의 하위개념이다.

2) 미군의 경우 정보전은 정보작전의 하위개념이며, 지휘통제전은 정보전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다. 역시 한국군과 반대 개념이다. 또한 민사, 공보활동을 정보작전의 범주로 보고 있는 한국군과 민사, 공보에 정치군사활동을 추가하여 이들은 정보작전을 지원하고 통합되어 운용되어야 할 기능적 분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한국군과의 차이점이다.

다. 국방참모대학에서 1997년 미 육군교범(FM 100-6) 「정보운영」(Information Operation) 번역본에 의하면 Information Operations를 정보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운영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그 내용중에 정보운용에 대한 용어채택 배경과 정보전과 정보운영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정보전의 목표는 군 전체적으로 적을 통제하고 빨리 석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육군은 최근 국방성에 의하여 정의된 정보전(IW)은 실제 분쟁기간중 정보의 영향에 관하여 보다 협의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상작전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을 보다 확대 해석하고 여기에 정보운영(IO)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육군은 육군의 전반적 작전(통상적인 전쟁의 범주를 벗어난)에 연관된 정보문제를 이러한 광의적인 접근으로 평화에서 세계전쟁에까지 연관시켰다. 정보운영(IO)은 지상의 각 제대지휘관을 위하여 정보전(IW)의 정책을 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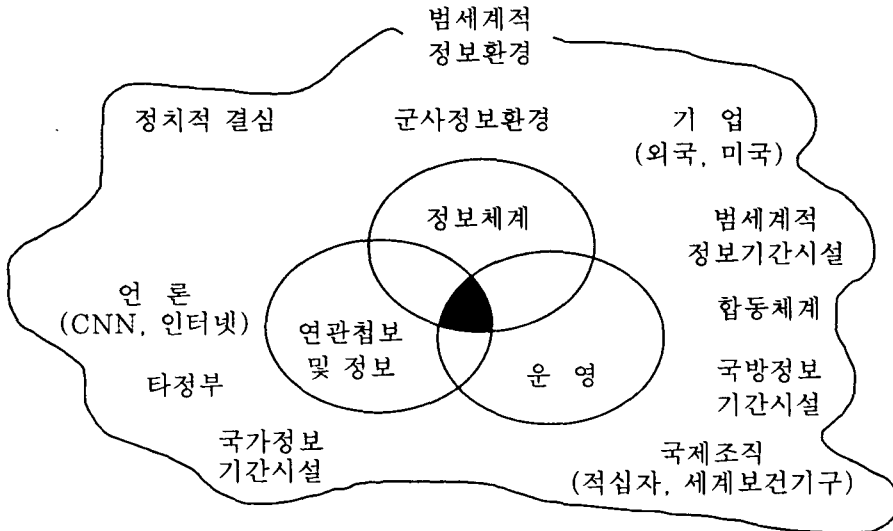


그림 4. 정보운영

또한 정보운영의 정의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의 전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정보환경(MIE)내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작전으로 우군의 정보수집, 처리 및 행동능력을 보호, 증가 및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정보운영(IO)은 범세계적 정보환경(GIE)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적의 정보와 의사결정능력을 와해시키거나 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운영의 3개 구성요소와 군사정보환경(MIE)내에서 이루어진 전장에서의 작용을 앞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1) 한국군 교리와의 차이점

(가) 영 역

1) 한국군의 정보전의 영역은 군사 및 비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이며, 정보작전은 군사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이다.

2) 미군의 경우 정보전의 목표는 군 전체적으로 적을 통제하고 빨리 석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며 정보작전(이 번역본에서는 정보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운영이라고 함)은 군사정보환경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정보환경과 상호연관 적의 정보와 의사결정을 와해시키거나 거부한다. 따라서 영역면에서도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똑같은 영어 Information Operations을 지금까지의 모든 교범들에서는 정보작전이란 용어로 번역 및 해석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서는 정보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운영이라고 번역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작전(作戰)은 전(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행과정이라고 본다면 정보전(戰)은 당연히 정보작전(作戰)의 상위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군이 정보전과 정보작전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며 그렇게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군의 정보전과 정보작전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만약에 Information Operations을 정보운영이라고 번역 사용하였다면 전(戰)과 작전(作戰)의 관계로 인한 혼동이 없이 미군의 상반된 개념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선 Ⅲ항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라. 미 Joint Pub 1-02 「국방부 군사용어사전」에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은 적에 대한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위기 혹은 분쟁시 수행

◆ 海洋戰略 第114號('02. 3)

되는 정보작전이다.(Information operations conducted during time of crisis or conflict to achieve or promote specific objectives over a specific adversary or adversaries)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이란 자신의(one's own)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적(상대방, adversary)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Actions taken to affect adver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while defending one's ow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한국군 교리와의 차이점

(가) 실행목적, 적용시기

1) 한국군의 경우 정보전은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반적인 개념이고 전·평시 적용하며, 정보작전은 군사적 차원에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개념이고 역시 전·평시 적용한다.

2) 미군의 경우 정보전은 적에 대한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위기 혹은 분쟁시 수행하며, 정보작전은 자신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이다. 따라서 개념상 적용범위가 서로 반대이고 적용시기면에서 미군의 경우 정보전은 위기 및 분쟁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Ⅲ. 용어 사용 및 해석상의 차이점으로 본 한·미군간 정보전과 정보작전

용어 사용 및 해석상의 차이점으로 본 한·미군간 정보전과 정보작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관련된 각 용어들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첩보(諜報, Information) 및 정보(情報, Intelligence)

가. 첩보란 관측, 보고, 풍문, 사진 및 기타 출처로부터 나온 평가되지 않은 기록자료이다.(1. Fact, data, or instructions in any medium or form.
2. The meaning that a human assigns to data by means of the known conversations used in their representation)

나. 정보란 적 및 작전지역에 관하여 군사계획과 작전에 즉각 혹은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첩보를 수집, 처리(기록, 평가, 해석)하여 얻어진 결론을 말한다.(1. The product resulting from the collection, processing, integration, analysis,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foreign countries or areas. 2.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an adversary obtained through observation, investigation, analysis, or understanding)

다. 한 · 미군간 차이점

영문 Information과 Intelligence의 해석을 첩보 및 정보로 분명히 하고 정의 구분도 명확히 하고 있어 설명과 사용에 있어선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참고로 미 해병대 FMFM 3-21 「MAGTF Intelligence Operations」(공지기동부대 정보작전)에 의하면 첩보(Information)는 전투첩보(Combat Information)와 정보첩보(Intelligence Information)로 구분하고, 정보(Intelligence)는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 전투정보(Combat Intelligence)로 구분 사용하고 있다. 즉, 한국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보첩보(Intelligence Information), 전투첩보(Combat Intelligence)란 용어가 추가분류 사용되고 있다.

2. Intelligence Operations과 Information Operations

가. Intelligence Operation

(1) 한국군의 경우 Intelligence Operations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과 용어사용이 없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Information Operations과 동일하게 정보작전이라고 한다.

(2) 미군의 경우 미 Joint Pub 1-02 「국방부 군사용어사전」상에 보면 Intelligence Operations이란 “여러 정보조직과 활동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보활동을 말하며, 특히 정보수집이나 정보생산활동을 말하는데, 정보수집활동시 Intelligence Operation은 수집, 처리, 개발, 첩보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생산활동시 Intelligence Operation은 대조(조사), 통합, 해석, 분석,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The variety of intelligence tasks that are carried out by various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actives. Predominantly, it refers to either intelligence collection or intelligence production activities. When used in the context of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intelligence operations refer to collection, processing, exploitation, and reporting of information. When used in the context of intelligence production activities, it refers to collation, integration, interpretation, and analysis, leading to the dissemination of a finished product)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 해병대 MCWP 2-1 「Intelligence Operations」에 의하면 “Intelligence Operations는 정보요원과 조직이 정보작전(Intelligence Operations)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과 활동을 한다. 이것은 지휘관의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지원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장의 묘사(설명),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장에서의 주요인(key factor) 식별, 위협분석, 적의 중심(重心)과 약점 의도를 파악한다.”(Intelligenc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perform a number of separate and distinct activities and functions that are collectively known as intelligence operations. Intelligence operations are conducted to provide intelligence in suppo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mmanders down to the small-unit level…… Intelligence reduces uncertainty and suppor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Describing the battlespace. Identifying key factors in the battlespace that can influence operations. Defining and evaluating threat capabilities. Identifying the enemy’s center of gravity and critical vulnerabilities. Assessing enemy intentions.)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Information Operations

(1) 한국군의 경우 정보작전은 전장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와 C⁴I 체계는 보호하고, 적의 정보체계 및 C⁴I 체계를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 장악에 기여하는 작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미군은 정보작전이란 자신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적(상대방, adversary)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이다. 정보작전은 모든 수준의 전쟁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전 작전단계에 적용하며, 국가 및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작전들(지, 해, 공, 우주, 특수)과 통합되어야 한다.(Information Operations involve actions taken to affect adver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while defending one's ow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IO apply across all phases of an operation, the range of military operations, and at every level of war. IO must be integrated with other operations(air, land, sea, space, and special) and contribute to national and military objectives)고 명시되어 있다.

다. 한 · 미군간 차이점

(1) 한국군의 경우 Information, Intelligence에 대해선 정보, 첩보로 명확히 구분 미군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Intelligence Operations에 대해선 특별한 설명이 없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Intelligence Operations나 Information Operations을 동일하게 정보작전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2) 미군의 경우 Intelligence Operations과 Information Operations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개념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 즉, Information Operations이 Intelligence Operations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3. War, Warfare, Operations

가. 전쟁(戰爭, War)이란?

(1)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 ·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과 교참 101-20-1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

◆ 海洋戰略 第114號('02. 3)

(나) 주권을 가진 국가간의 조직적인 무력투쟁 상태로서 선전포고와 더불어 개시되고 강화조약으로 무력투쟁이 종결될 때까지의 상태

(다)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역(campaigns)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전(戰, Warfare)이란?

(1) 교참 101-20-1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전쟁” 용어설명에 영어의 war와 warfare를 동일시하고 있다.

(2) 해전 0-2 「해군전」에 의하면,

(가) 국어대사전에 의한 ~전은 전쟁, 시합, 경쟁의 뜻으로 어느 사실 또는 지명의 명사 밑에 붙어 그러한 싸움 또는 그곳에서의 싸움을 나타내는 말임.

(나) ○○전이란 전투의 어떤 방식별, 장소별 또는 성분 전투별로 ○○전이라 칭함. (예) 소모전, 기동전, 기동마비전, 지상전, 해상전, 수중전, 공중전, 대수상합전, 대잠수합전, 대공전, 상륙전, 기뢰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영영사전에 보면 Warfare(戰)는 war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인 활동(the way a war is fought)의 형태(germ warfare, guerilla warfare~etc.)로 설명이 되고 있다.

다. 작전(作戰, Operation)

(1) 해전 0-2 「해군전」에 의하면,

연합·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의한 작전의 정의는 전략, 전술, 근무, 훈련 및 군 행정업무에 관한 군사적인 행동 또는 수행과정이다.

(가) 즉, 어떤 전투나 전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투의 수행과정으로서 이동, 보급, 공격, 방어 및 기동 등이 포함된다.

(나) 작전은 ○○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군사행동의 수단이요, 그 수행과정을 의미한다.

(다) ○○작전이란 작전형태 또는 성분별로 “○○작전”이라 칭하거나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작전”이라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 해상작전, 지상작전, 공중작전, 공격작전, 방어작전, 후방지역작전, 대잠작전, 상륙작전, 대함작전, 인천상륙작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영영사전상의 의미로 Operation은

(가) a way or process of working.

(나) surgical procedure,

(다) something that needs to be done,

(라) (pl) the main internal workings of business, military, or government로 명시되어 있으며 군대내에서는 (라)항 복수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해전 0-2 「해군전」에서 보면

용어의 구별사용면에서 “○○전”과 “○○작전”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 사용하기는 곤란하나 군사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사용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전”은 전투철학이나 전투의 어떤 성분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나) “○○작전”은 전투의미에서 추가하여 이를 위한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와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한 군사행동이나 과정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한 · 미군간 차이점

(1) War는 The World War II, War and Peace 등과 같이 일반적인 전쟁(戰爭)의 개념으로 한 · 미간 차이점이 없다.

(2) Warfare는 Chemical Warfare, Information Warfare 같이 War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활동(The way a war is fought)이다.

(3) Operations(s)은 작전(作戰), 즉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투수행 과정이다.(The main internal workings of business, military, or government)

Information Warfare에서 Warfare를 전(戰)으로 해석하면 정보전(戰)이 되고, Information Operations에서 Operations를 작전(作戰)으로 해석하면 정보작전(作戰)이 된다.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작전(作戰)은 전(戰)의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정보작전(作戰)(Information Operations)도 정보전(戰)(Information Warfare)의 하위개념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군이 정보전과 정보작전을 이해하고 있

는 관점이며 그렇게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가 반대의 개념이다.

만약에 Information Operations을 정보운영이라고 번역 사용하였다면 전(戰)과 작전(作戰)의 관계로 인한 혼동이 없이 미군의 상반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덧붙여서 Cyber전 방호태세 개념을 가진 INFOCON(Information Operations Condition)을 정보작전 방호태세라고 용어를 사용함이 과연 적절한 용어 사용인가? 지금까지 위에서 알아본 개념상으로는 공세적 및 방어적 정보작전의 일부인 Cyber전을 너무 포괄적 개념인 정보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용어정의의 출발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보, 첩보, Intelligence Operation, Information Operations, Information Warfare 등의 세분화된 용어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미간 정보전과 정보작전에 대한 차이점을 교범상의 교리와 용어 해석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미간 정보전, 정보작전 개념 비교

구 분	한 국 군	미 군
개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국가총력전(대전략전) 차원 ○ 정보작전 군사적 차원 ○ 정보전이 정보작전보다 포괄적 상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군사적 차원 ○ 정보작전 군사적, 국가적 차원 포함 ○ 정보전이 정보작전의 하위개념
영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군사/비군사분야 정보 및 정보체계 ○ 정보작전 군사분야 정보 및 정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군사분야 정보 및 정보체계 ○ 정보작전 군사/비군사분야 정보 및 정보체계 (모든 수준의 전쟁, 범세계적 정보환경과 상호연관)

구 분	한 국 군	미 군
범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작전 — 경제정보전 — 해커전 — 사이버전 ○ 정보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통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 — 심리전 — 물리적 파괴 — 작전보안 — 민사작전 — 공보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통제전은 정보전의 하위개념이며, 지휘통제전에 전자전, 심리전, 물리적 파괴, 작전보안 외에 특수정보작전(Special Information Operations), 컴퓨터망 공격 추가분류 ○ 정보작전은 범세계적 정보환경과 연관 ○ 공보, 민사, 정치군사활동 정보작전 지원 기능적 분야
적용시기	○ 정보전, 정보작전 공히 전 · 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 위기시/분쟁시 ○ 정보작전 전 · 평시

IV. 맺음말

오늘날 군 운용의 필수요소인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이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만큼 정보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관련교리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과정에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주요정보는 미군한테 의지하고 있고 한국의 방위가 한 · 미 안보체제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한 · 미 연합작전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군사작전 수행교리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원만한 업무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한 · 미간 정보전과 정보작전 개념이해상의 어려움을 미군과 비교해서 먼저 용어 사용상의 개념과 범위의 차이점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용어 해석상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은 분석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 海洋戰略 第114號('02. 3)

차제에 우리의 한국적 여건에 맞는 교리를 정립하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해석상의 내용을 수정하든지 해서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장교나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장교들이 동일감각과 개념을 갖고 업무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육군본부, 야전교범 100-1, 「지상작전」 1999.
- 육군본부, 야전교범 101-6, 「정보작전」 1998.
- 해군본부, 해교 0-2, 「해군전」 1999.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9(초안), 「합동정보작전」 1999.
- 국방참모대학(역), 미 육군교범(FM 100-6), 「정보운영」 1997.
- 육군대학, 예습교재 “정보”, 2001.
- 이종수, “정보작전에 대한 고찰”, 「합참」 제16호(2001. 1. 1).
- 황호상, “군사교리로 본 정보전”, 「국방저널」 제12호(2001. 11).
- 한·미 연합군사령부, 연작 3-4.2, 「한반도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KOREA), 1999.
- U. S.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 3-13, “Joint Doctrine for Information Operations”, 1998.
- U. S. Marine Corps, MCWP 2-1, “Intelligence Operations”, 1998.
- U. S. Marine Corps, FMFM 3-21, “MAGTF Intelligence Operations”, 1991.
- U. S.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 1-02, “Department of Defenc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1994.
- U. S. Joint Doctrine Encyclopedia, 1997.